

해군사관학교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 치사

친애하는 해군사관학교 졸업생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학부모와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4년간의 힘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임관의 영예를 안은 해사 제57기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특히, 해사 개교 이래 처음인 21명의 여성 졸업생 여러분에게 각별한 격려와 축하를 보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정성과 사랑으로 뒷받침해 주신 학부모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장 서영길 제독을 비롯한 교수와 훈육관 여러분의 노고도 매우 컸습니다.

여러분의 늠름한 모습과 우리 함정들의 위풍당당한 모습에서 나는 우리 해군의 밝은 내일을 봅니다. 나와 우리 국민은 여러분 모두가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훌륭한 지휘관이 되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바다와 인연이 깊습니다. 바다를 보며 자랐고 해양수산부를 이끄는 장관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도전과 꿈이 있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우리 해군에 대해 남다른 친밀감을 느낍니다.

졸업생 여러분, 사관생도와 해군장병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새로운 역사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새로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동북아 시대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 해역은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한 만큼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이 해역에서 실리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는 곧 여러분이 활동해야 할 무대와 사명이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것은 물론 오대양에서 우리의 권익을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지킬 힘이 없었을 때 동북아의 평화도 깨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시급합니다. 대화를 통해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룩해 온 번영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동북아 중심국가를 향한 우리의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평화를 지키는 일이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지키는 방패는 튼튼한 안보입니다. 그 어떤 도전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육·해·공 3군이 균형있게 발전해 나가고, 과학군·정보군으로 한차원 높게 도약해야 합니다.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비롯한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공조체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해군 장병 여러분,

우리 해군은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400여년 전 조선 수군은 충무공의 지휘 아래 풍전등화와 같던 나라를 구했습니다. 연평해전과 서해교전에서도 목숨 바쳐 우리의 바다를 지켰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해군 장병들은 함정의 비좁은 공간에서, 바다로 둘러싸인 외로운 섬에서 국가방위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해군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의 안보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선진해군'의 건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7천톤급 구축함과 대형수송함, 차기잠수함, 대잠항공기 등을 확보해 수상과 수중, 항공의 입체전력을 갖춘 기동함대를 구비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대양해군 시대를 힘차게 열어 가겠습니다.

신임 해군장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자랑스런 대한민국 해군장교가 되어 저 넓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저 앞에 펼쳐진 넓고 푸른 바다가 동북아 중심국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보고 대사와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자랑스런 후예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는 동아시아의 바다를 제패했던 장보고 대사의 기개가 고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 속에는 나라를 구한 충무공의 숭고한 호국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 국민은 여러분의 장도를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운과 승리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